

Market Index / 17일

코스피지수 ▲ 2195.68 +27.53	코스닥지수 ▲ 650.58 +6.14	유가(WTI, 달러) ▲ 60.21 +0.14	환율(원) 1USD 100¥ 1186.91 1083.25	팔매 1146.09 1045.99	1EUR 1325.69 175.05	1CNY 1273.97 158.39
---------------------------	-------------------------	------------------------------	---------------------------------------	-----------------------	------------------------	------------------------

상승가도 제주 집값 '내리막길'

2020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전년보다 1.6% ↓
2017년 18% → 18년 12% → 19년 6.7% 상승세 둔화

제주지역 주택가격의 하락세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내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안)이 전국 평균 4.5% 상승했지만 상승가도를 달리던 제주주는 하락세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안) 열람에 착수하기에 앞서 17일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의 2020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의견청취(안)에 따르면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이 평균 4.5% 상승한 가운데 서울 6.8%, 광주 5.9%, 대구 5.8% 등 순으로 오르게 된다.

재건축 등 개발 수요가 높았던 서울은 6.8% 올라 전국 최고 상승률을 보였지만 지난해(17.8%)보다는 상승폭이 적다. 서울에 이어 광주 5.9%, 대구 5.8% 등이 전국 평균보다

상승률이 높았다. 대전은 4.2% 상승하며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폭이 유일하게 지난해(3.9%)보다 컸다. 부산(4.3%), 인천(4.4%), 세종(4.7%), 경기(4.5%), 전남(4.0%)도 각각 4%대의 공시가격 상승률을 나타냈다. 강원(2.8%), 전북(2.6%), 충북(1.7%), 충남(0.8%)도 소폭 상승했다.

그러나 중국자본의 급격한 이탈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제주를 비롯해 경남과 울산은 각각 1.6%, 0.4%, 0.2%씩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전년보다 낮아졌다. 올해 제주지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년보다 6.7% 올랐다.

제주지역은 2015년 4.47% 상승률에서 2016년 두자릿수인 16.48%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어 2017년 18.03% 상승하며 정점을 찍은 뒤 2018년 12.49%의 상승률을 보였다.

하지만 2019년 6.76%로 4년만에 한 자릿수대로 복귀했다.

시세구간별로 9억원 미만의 중저가주택은 시세상승률 수준인 3% 내외 변동률로 전체 평균(4.5%)보다 낮게 나타났다. 3억원 미만 주택은 공시가격이 2.4% 상승에 그쳤고 3억~6억원 미만은 3.3%, 6~9억원 미만 주택은 3.8% 올랐다.

반면 시세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은 실제 시세상승분과 함께 현실화를 제고분을 반영함에 따라 변동률이 높게 나타났다. 12억~15억원 미만 주택은 공시가격이 평균 10.1% 올랐다. 이와 함께 9억~12억원 주택은 7.9% 상승했고 15억~30억 주택도 7.5% 올랐다. 30억원 이상 초고가 표준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4.8% 상승했다.

한편 2020년 가격공시 방안에 따라 선정된 공시가격은 18일 표준단독주택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결정 공시될 예정이다.

조선윤기자 sycho@ihalla.com

박형환 한전 본사 처장 19일 제주본부장 취임



신임 한국전력공사 제주본부장에 박형환 처장(57·사진)이 임명됐다. 한국전력은 처장급 인사를 단행하고 19일자로 신임 제주본부장에 박형환 본사 영업운영처장을 전보 발령했다고 17일 밝혔다.

박형환 신임 제주본부장은 경북 경주 출신으로 경북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고 1986년 한국전력에 입사한 이후 경기본부 광명지사장과 노무처 노사업무실장, 영업운영처장 등을 역임했다.

한편 신재섭 전 한국전력 제주본부장은 경기본부 본부로 전보 발령됐다. 김경섭기자

독자제보 750-2280



희망나래, 좋은사회적기업상 '최우수'

제주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나래가 '올해의 좋은 사회적기업상'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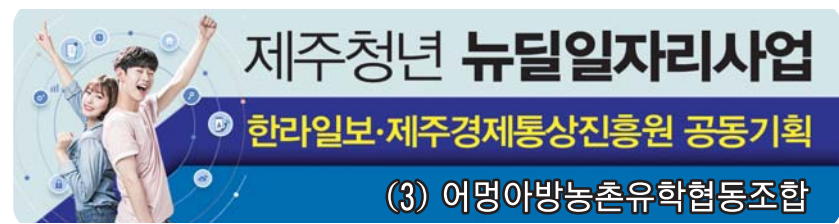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제28회 경실련 좋은기업상' 및 '제5회 좋은사회적기업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희망나래가 지역사회공헌 및 사회서비스제공 부문 최우수기업상을 수상했다.

희망나래는 발달장애인과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공공형 주간보호시설을 위탁 운영하고 있어 윤리적 가치 및 경제적 가치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사회적기업들을 대상으로 공익적 가치는 물론 윤리적 가치, 경제적가치를 종합해 선정한 '좋은사회적기업'을 발표하고 있다. 김경섭기자

"농촌 활성화·마을문제 해결 중점"



아이들이 향토음식을 만들고 있는 모습. 사진=어머야방농촌유학협동조합 제공

청년들 문서처리·회계·홍보마케팅 수행... 조합에 큰 힘 학교살리기서 마을·공동체 살리기로 활동영역 확대

서귀포시 성산읍 신풍리에 위치한 어머야방농촌유학협동조합(대표 김영선, 이하 조합)은 2012년부터 농촌의 귀중함을 가르치는 것을 목표로 도시 아이들의 농촌생활을 지원하고 있다. 당초 통폐합의 위기에 봉착한 초등학교를 구해내기 위해 설립된 어머야방농촌유학협동조합은 마을·공동체 살리기로까지 활동영역을 넓히고 있다. 이같은 마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도내 청년이 가세해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

조합은 지난해 9월부터 내년 7월까지 제주경제통상진흥원의 '제주청년 뉴딜일자리사업'을 통해 청년 인력 3명을 지원받았다. 이들 청년은 조합과 관련된 각종 문서처리, 회계와 홍보 마케팅 업무를 수

행하며 조합에 큰 힘이 되고 있다. 제주경제통상진흥원은 인건비(인당 총 인건비의 90%) 지원과 농촌유학 교육·재무 및 마케팅 컨설팅 교육도 지원하고 있다.

청년 3명은 재단 관련 사업문서·제주청년 뉴딜일자리사업문서 처리, 농촌유학 문서처리·회계, 마을공동체 살리기와 홍보마케팅 등 업무를 각각 수행하고 있다.

아이돌봄교사는 방과 후 오후 2시부터 시작해 프로그램을 하기 전 아이들에게 간식을 만들어 주거나 아이들이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며 아이들을 돌보고 있다. 홍보마케팅은 어머야방농촌유학협동조합의 블로그, 홈페이지,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아이들의 일상을 공유

하고 농촌유학생 모집 포스터와 팸플릿을 제작해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사업관련 문서는 각자 맡아서 유연하게 소통하며 처리하고 있다.

김영선 대표는 "제주청년 뉴딜일자리 지원사업 덕분에 사업의 역할 분배가 원활해지면서 능률적인 일 처리가 가능해졌다"라며 "사업 지원 기간이 짧다는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조합은 앞으로도 농촌 지역 활성화와 마을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일을 청년들과 함께 풀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합의 활동영역은 2015년부터 자연스럽게 학교살리기에서 마을살리기로 확대됐다. 그때부터 아이와 부모가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가족형 유학프로그램이 운영됐고 이는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조합은 지난 2016년과 2017년엔 토박이과 정착민 간 벽을 허무는 훈디사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훈디사업은 문화적 차이에 대한 교육을 받은 토박이, 정착민 여성 활동가 '훈디'가 제주살이 코디네이터로 활동하며 두 집단이 어울릴 수 있는 활동을 기획하는 사업이다. 마을 주민들과 제대로 부대끼지 못했던 정착민 어머야(60%)와 신풍리 토박이 어머야(40%)로 구성된 훈디는 '마을길 걷기', '영화같이보기', '공예 체험 같이하기'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했고 마을사람들은 서로 교감하며 벽을 허물었다. 인사만 나누던 이웃들이 서로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총 30명의 아이들이 조합을 거쳐갔고 이들은 6개월간 보리밭기, 우렁пат(덧밭) 만들기, 승마프로그램 등을 체험하며 농촌의 가치를 배웠다. 김경섭기자

제주조달청, 옹기제작 현장 방문 애로사항 청취

제주지방조달청은 17일 제주시 주르레길에 위치한 '담화헌'을 방문해 옹기제작현장을 살펴보고 애로사항 청취 및 판로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등

현장소통에 나섰다. 담화헌은 제주옹기를 사용해 유약을 바르지 않고 구워내는 제주 전통방식으로 숨쉬는 옹기 '팽'(甁)의

제주방언)을 만들고 있다. 팽은 작년 9월 정부 우수문화상품에 선정된데 이어 올해 12월 나라장터 정부조달전문상품 전용몰에 전통옹기부분으로는 유일하게 등록됐다.

김경섭기자 kks@ihalla.com

공인중개사 제주컨설팅 ☎ 726-4585 / 010-8660-1263

<p>와흘리 계획관리지역 창고 대지 2,100㎡ 창고 2동 64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좌읍 김녕리 4,300㎡(자연녹지, 맹지) 거로마을 주거지역 1600㎡ 남원 하례리 2300㎡ 자연녹지(과) 대정읍 무릉리 전 12,000㎡(계획관리지역) 법환동 2400㎡, 5000㎡ 해안도로 인근 (건축허가 특) 서귀포 강정동 2100㎡ 자연녹지(과) 	<p>화북2동(공업단지맞은편) 대 2,500㎡ 건 400㎡ 화북2동(공업단지맞은편) 대 1600㎡, 건 16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귀포 법환동 오피스텔 38.19㎡ 분양가 이하 매매 삼도1동 2층 주택 대 165㎡, 건 150㎡ 애월 유수암리 2,500㎡(계획관리, 임, 2차선점) 조천읍 북촌리 전 3,000㎡(자연녹지, 맹지) 조천 신촌리 자연녹지 1,600㎡(대도로점) 한경면 저지리 전 (11,000㎡) 계획관리지역
---	---

동부공인중개사 ☎ 010-2800-4595 / 064-747-5115

<p>※ 이도동 칼호텔동측 대 192㎡ 주택 80㎡ 3억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안동마을 맹지 대 674㎡/매가 50㎡ 5억 해안동 생관아(목장) 맹지 28,842㎡ 6억 아라동기차촌 1090㎡ 9.24억 아라동기차촌 1090㎡ 9.24억 하례5.16도로동측과수원 8856㎡ 11억원 	<p>※ 연동명주마을 신설2차선도로 점 168㎡ 3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애월수신봉저수지인근 카페용지 620㎡ 3.1억 봉성 시멘트도점 임야 842㎡ 6000만원 고성외고인근2차선점 대지조성 481㎡ 6.9억원 한림상명 조림식주택 60㎡/대 430㎡ 1.5억 관포 바다경관 '곳' 자연녹지 3028㎡ 6.4억 원 	<p>※ 애월남읍자연취락지구 대지 410㎡ 1.65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문고인근 자연녹지 638㎡ 3.35억 조천해안도로인근 대지 502㎡ 3.35억 우도하교수동해수욕장인근 10,323㎡ 12.5억원 월정리 해수욕장 택지조성지 393㎡ 6.5억 김녕해안도로점 2474㎡ 15억원
--	--	---

본 광고는 사전심의필 2007-GN1-25-0147

← 광양 — 오라파출소 — 터미널 — 신제주 →
한국병원 — 소리샘 보청기

잘 안들리십니까? 소리샘 디지털 보청기와 함께 하십시오.

① 소리샘 디지털 보청기는 미국 스타키와 마이크로텍사의 제품을 취급합니다.
② 소리샘 디지털 보청기는 고객의 청력에 적합한 올바른 보청기 상담 및 A/S를 책임집니다.

신경성, 노인성, 소음성난청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무료 청력검사 및 방문 상담 가능

소리샘 보청기 TEL. 753-5347
제주시 삼도1동 507-3(2층)